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2.(월) 11:00,
(지면) 2024. 12. 3.(화) 조간

배포 2024. 12. 2.(월) 06:00

글로벌 항만 선점 위한 민·관 협력의 장 열린다

- 12월 3일(화) '2024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일(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4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 소개에 이어, 글로벌 터미널들의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세계 항만개발시장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항만 수출모델(K-컨소시엄)의 확대와 맞춤형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외항만개발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선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민범기 (044-200-5961)